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2호 [루체 제25080호] 주제 104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라오스안전보위상인 쌈깨우 씨와 청장장이 27일 인민보안부장으로서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 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발전소건설을 완공함에 따라 당장 70돐에 드리는 청년돌격대원들과 인민군인들, 전체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그 이께서는 건설자들을 함께 배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 연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그이께서는 조선청년들이 앞으로 도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세네갈신문 『러 브륄레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게 배두산영

운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과 나이체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원회, 민주평화, 도이월란드의 인터넷사진전문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드반체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우의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배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존경과 함께 장면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북의 무력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 북은 그 어떤 형태의 싸움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경탄하였다.

인천의 한 시민사회단체성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찌기 위대한 배두산총대 가정,

군인에게서 탄생하여 풍파를 겪었을 때 놓고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려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성대히 개최하도록 하면서 그분께서는 오래 전부터 당시에 이남과 미국당국을 기절초풍케 하시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은 그분의 배짱과 달력을 그대로 보여 준 게 되었다고 탄복하였다.

『우리 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과 통기 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역사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국주의 학제적 협력으로 세계가 더 넓어졌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은 운명을

【조선중앙통신】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

남조선각계가 높이 칭송

제국주의 강적들도 감히 범접을 못하는 나라,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제재에 통할수 없는 나라, 자주와 존엄에 사는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북이다.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민족의 지위와 운명에서 이토록 거대한 전변을 일으킨 절세의

국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위업을

오늘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이어가고 계신다.

군사전문가들은 북의 강위력한 북장력은 바로 백두의 철통을 그대로 이으신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령도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그분께서는 오래 전부터 당시에 이남과 미국당국을 기절초풍케 하시었다고 하면서 이 사실은 그분의 배짱과 달력을 그대로 보여 준 게 되었다고 탄복하였다.

『우리 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과 통기 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역사에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국주의 학제적 협력으로 세계가 더 넓어졌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은 운명을

【조선중앙통신】

지니신 젊은 지도자이시다. 그분의 활동을 종합해 보면 빈틈이 없이 저 면 수까지 내리보시고 어려분야를 동시에 장악하시면서도 선후차와 경중을 정확히 타산하시여 추진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한 남조선대학생은 『조선의 강대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명토도 인구도 작은 조선, 미국도 감히 어찌모두하고 누구도 함부로 범하지 못하는 그 강대함의 뿌리는 파연 어디에 있는가고 하면서 이렇게 언명하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정계, 사회단체들, 전보적인 유

는 백두령장 김정은은 최고사령관께서 그분의 배짱과 달력을 그대로 보여 준 게 되었다고 탄복하였다.

한 인터넷신문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은 운명을

【조선중앙통신】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된 강성국가를 이 땅우에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누구나 배우는 전민학습체계의 생활력 힘있게 과시

김책 공업종합대학 원격 교육대학 첫

졸업생들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는 3년동안에 대

학과정을 마친 졸업생들과 전기

간 최우등의 성적을 경위한 졸

업생들이 많으며 수십명이 학위

수여되었다.

각지 공장, 기업체 일군들과

원격 교육대학 졸업생들은 원격

교육으로 유통망에 대한

기술인재화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교육부문 일군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전민과학

기술인재화실현에서 동로계급

제1기 졸업생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를 실현하여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확보로 통제의 힘으로 경

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을 안아온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정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

시기품을 세우며 전민과학기

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

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 인민은 자주적인 사

상의식과 함께 높은 과학기술

을 실현하여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확보로 통제의 힘으로 경

제강국건설에서 비약을 안아온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정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

시기품을 세우며 전민과학기

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현

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황철의 토동자를

다음한 각지 근로자들이 김책공

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첫 졸

업생으로 되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세계적 수준의 차량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결기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정신을 힘

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대그림으로써 침단기술이 도입된 세계적수준의 차량생산에서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김두일 철도성 정치국장, 현기기장소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서 보여준 기운을 표명하시고 새 운용과 함께 차량생산에 대한 시찰을 했던 김일성同志회장을 대한 뜻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는 백두의 냉파 기상을 막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을으로 사회주의 원조와 혼연一体로 일군들을 펼쳐 전민학습체계의 생활력을 대한 뜻을 표시된다.

지금 전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원격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1 700여 개의 단위에서 근 1 만명의 학생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 교육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는 원조의 냉파 기상을 막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을으로 사회주의 원조와 혼연一体로 일군들을 펼쳐 전민학습체계의 생활력을 대한 뜻을 표시된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우리는 원조의 냉파 기상을 막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을으로 사회주의 원조와 혼연一体로 일군들을 펼쳐 전민학습체계의 생활력을 대한 뜻을 표시된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그들은 날로 늘어나는 철도 수송과 교통운수수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전기 기관차와 차량원들의 철기모임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광천광산 특연생산 진행

광천광산에 흑연생산공정이

새로 꾸려져 조업하였다.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훌륭히

일폐식으로 쌈께지어져 있다.

현대적인 생산공정이 훌륭히

일폐식으로 쌈께지어져

당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새겨주는 의의있는 계기

평양 제2백화점에서 열린 여러 인민소비품 전시회장을 돌아보기

전시품을 통해 본 인민관의 뚜렷한 발현

제 26 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 전국 206 가지 일용잡화 전시회, 전국 8월 3일 인민소비품전시회가 평양제2백화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궁지와 자부심을 안하고 총진군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때에 여러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전시회장을 찾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무려 수천종에 수십만점에 달하는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품종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욱 증시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가 제품의 질적변화이다.

인민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하나하나의 제품에 반영한 것과 식료품들, 형태와 색깔이 보다 다양해진 신발제품들과 같이 상품적거치가 뚜렷이 부각되는 소비품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반면에 어려운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여 발전하는 시대적요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품을 내놓은 단위들도 있다.

이번 차이로 하여 이번 전시회는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의 인민관이 뚜렷이 평가되는 전시회라고 볼수 있다.

우리 당이 소호하고 있는 인민에 대한 단위별무정신을 전국의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새겨안았는가를 전시회에 참관한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생활필수품의 질이 자급률과 일군들의 인민관의 반영입니다.』

이번에 중앙공업공장들을 통해서 인민생활향상의 밖은 전망을 내다보게 하고 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빙우에서 일며 세워 주신 공장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온갖

로고를 바치시며 하나님과 꾸려 주신 협회원 중앙공업공장

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것은 하는 문제가 원로나 자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과 인민간에 인민소비품생산

을 책임진 일군들의 사상문제에

있다는 것이 현실로 뚜렷이 확증되었다.

최근간 경공업성, 식료일용

공업성 일군들은 통이 큰 걸림

을 바라기로 일관을 대답하고

통이 크게 빙우 일군들이 있는

부문과 단위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

소비품생산을 힘 있게 밀고나갈

데 대한 당의 요구를 받들고 통

로 끌어들여 모양이다. 그

은이 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으로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서

인경원의 품종수가 늘어났다.

특히 공장에서 새로 개발되어

온갖 제품을 내놓은 단

위들도 있다.

이번 차이로 하여 이번 전시회는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의 인민관이 뚜렷이 평가되는 전시회라고 볼수 있다.

우리 당이 소호하고 있는 인민에 대한 단위별무정신을 전국의

인민의 목소리—《우리 식료품》

제 26 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새겨안았던 것은 그 자체로도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문 일군의 말에 의하면 선

홍식료품전시회를 찾은 사람

들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식료품』, 스스로

없이 유통나오는 인민의 이

목소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새겨안게 되는가.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

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반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

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대처하

는 소비성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

야 합니다.』

전시회 식료품들을 보면 식료공

업부문에서의 질경쟁이 매우 치열

하다는 것이 대번에 느껴진다.

같은 맛을 가진 제품, 같은 재료

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도 가지는

가실로 다양하다. 그만큼 식료품생

산자들이 소비품의 발전을 위해 머

리를 많이 쓰고 있으며 그 전략이 뚜

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문 일군의 말에 의하면 선

홍식료품전시회를 찾은 사람

들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인경원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질을 높여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 랑만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다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 - 15련 일성황리에 진행

뜻깊은 10월의 환희를 더욱 고조시키는 체육열풍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승리자 대축전으로 빛나게 경축한 뜻 깊은 10월에 온 나라를 드새한 체육열풍으로 물들이며 수도의 여러 곳에서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15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경기를 넓리 조직하는 것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사람들의 체력을 발전하고 나라이의 체력을 발전시키며 사회에 문화정서생활 기품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지를 가진니다.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15에서는 우선 민족체육종목의 경기들이 판종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선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경기에서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또다시 함께 경기에 참가한 청춘남녀들이 비롯하여 누구나가 기세를 올리고 있어 합경북도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축구, 봉구를 비롯한 구기종

목경기장에서도 이제로운 장면

들이 편밀 절쳐지고 있다.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각 도(시)의 체육단선수들이 카마하는 남자축구경기의 조별리그전 전부 끝났다. 체육의 상장종목인 축구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경기준비에 특별히 힘을 더 넣었다는 도의 체육부문 일군인 김춘평동무의 말대로 평안북도팀 선수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날김없이 발휘하여 전문가들과 축구애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조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조에서 각각 우승한 평양시, 황해북도, 합경북도팀과 함께 준결승경기에 참가하였다.

각각 평안북도팀과 강원도팀을 이루고 있는 단위팀의 일군들이 김명덕, 문영철동무들은 평시에 자기 단위를 하나의 체육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구조목기들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히 힘을 기울여 경기장에서 종업원들의 체육열의 풍랑을 부여 놓여 도적인 강팀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였다.

평양체육관에서 남자축구경기와 함께 남자체육관에서는 남자봉구경기와 함께 남자체육관에서는 남자봉구경기와 함께 남자체육관에서는 남자봉구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강원도, 동북아시아에서 각각 우승한 평양시, 황해북도, 합경북도팀과 함께 준결승경기에 참가하였다.

자기 팀이 순위권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합경남도청년동맹위원회 일군인 엄용진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존엄높은 배우산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경기에서도 청년일군의 평가와 열정을 발휘하여 친환경을 받았다. 청춘거리 바드민턴경기판에서 진행된 청구경기는 평양시, 합경남도, 등이 앞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동평양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체육종목인 모형항공무선 조종경기에는 당시 온정숙에 각

도(시)에 꾸려진 항공구역부선수들이 참가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생, 대학생, 로동자, 농장원, 사무원, 체육단선수들이 각각 1명씩 출전하는 쇠름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매 팀에서 25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하는 바출당기경기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일군이 한영일동무의 지휘에 따라 합경북도의 바출당기경기선수들은 지혜와 힘을 학습하여 경기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까지 3차례의 전국도대 항군중체육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바출당기경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는 도민위원회 아래 단위 일군인 김인원위원회에서 각각 1등은 평양시, 2등은 황해북도, 3등은 평안남

도가 차지하였으며 각 도(시)에서 유치원생, 소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당을 따르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

영광에 찬 조선혁명은 자기의 창구한 역사우에 수많은 명곡들을 지울수 없는 자주마냥 새겨 넣으면 진전하여왔다.

주우같은 가사와 심오한 선율로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며 천만자루의 총검, 천만의 땅식을 대신 하여 준 그 수대를 끌어가며 혁명의 유산처럼 넘겨 주고 신념과 의지의 기들을 끌어가며 세워주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명작인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구조구절이 당을 떠리 끌까지 걸어갈 철석의 신념과 일심단결의 의지로 충만된 노래를 부르는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하찮은 사연이 밀물처럼 치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혁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에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입니다.』

『E.C』의 폐불이 타오르면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새월 우리 인민이 넘어온 혼신준령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우리 혁명의 명줄을 기어코

끊어버리려는 적들을 위에 달고 흑룡치는 눈보라를 맞받아 한주 일이면 갈수 있는 길을 밟여일 동안이나 헤쳐가야 했던 고난의 행군길은 얼마나 간고했던가.

준엄한 전화의 나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들의 어지러운 베리장을 짓밟으며 최고사령부를 찾았고 북으로 북으로 걸음을 재촉하던 수천수만의 『안양애』와 『법동동민』들이 넘은 산발은 배이민간, 천이민간,

힘들어도 주저없이 높은 평도 단승에 넘으며 걸어온 혁명의 길에는 1951년 12월의 눈내리는 천선의 구내길도 있다.

얼마나 힘겨운 때였던가.

인민들은 아직도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데 체계선너머에서는 미제과 파괴도당이 『북진』 나발을 미친듯이 불어대고 수정주의에 절어빠진 대국주의자들은 몇몇의 『진조』로 우리의 존엄을 우롱하려들었다.

여기에서 헌신을 헌堵되며 종파들을 당에 도전하여나섰고...

우리 혁명의 전도를 두고 세계가 우려하고 있음 때 강선의 눈보라길을 헤쳐 토통계 글을 찾아가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안팎에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 습김없이 털어놓으시며

나는 통무들을 믿고 통무들은

나를 믿고

준엄한 혁명의 난국을

터기해나가고 드롭게 호소

하였다.

그이의 물같은 호소에 강선의

토통계 군마니 아닌 온 나라 인

민이 한복소리로 웨쳤다.

수령님,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

오로지 수령님만을 지지하며

수령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인민의

물같은 충정은 천리마대고

조의 불길로 타번졌으며 우리

조국을 번영에로 주동하여 주

었다.

걸음마다 걸쳐드는 고난파

시련을 사생결단의 각으로

헤쳐가야 했던 선군의 혁난한

길에서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 하였고

여기에서 한복을 입은 청년학

생들이 헌신을 헌堵되며

죽어온 청년학생들이

